황 선 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어 이해 교육 수업 모형 개발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서 현

북한어 이해 교육 수업 모형 개발

황 선 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서 현

인 준 서

김서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대에 대한 존중은 ‘그렇게 하자’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노력과 교육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통일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가지고 ‘동질성 교육’을 행하지는 않았다. 특히 국어교육은 ‘동질성 교육’을 사회 . 윤리 교과에게만 맡기고,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 했다.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국어교육은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정서 교감의 매체인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언어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 차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 서로가 상대방의 언어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차이를 좁혀가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언어의 차이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동안 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대 언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계속해 왔으며, 그 연구 성과도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 차이의 극복은 학자들의 교류와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장차 다가올 통일을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어 이해교육’을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북한어 이해교육이 단편적, 비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언어의 차이의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북한어 이해 교육은 북한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북한어를 이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수업 모형은 남과 북의 언어의 뿌리가 하나임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사회 ·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어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 4

Ⅱ. 남북한 언어의 차이 ····· 7
1. 남북한의 언어관 ····· 7
2. 남북한의 언어정책 ····· 12
3. 남북한 언어의 실태 ····· 17

Ⅲ. 북한어 이해 교육 ····· 28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 ····· 28
2. 북한어 이해 교육의 실태 ····· 30
3. 교육의 내용 ····· 35
3.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체계 ····· 38
3. 2. 북한어 이해 교수 학습 내용 체계 ····· 45

Ⅳ. 북한어 이해 교육의 수업 모형 ····· 49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주안점 ····· 49
2. 북한어 이해 교육 실제 수업 모형 ····· 55

Ⅴ. 결론 ····· 85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지만 한반도는 시시때때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서로를 향한 적대적 감정이 형성되기도 한다. 우리민족이 남북 분단으로 고착된 상태가 반세기에 이르고 그간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목상태와 정서상의 차이로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겼으며, 특히 언어에 있어서도 다소 이질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정책은 통일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일관된 교육 정책을 가지고 '동질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국어 교육의 경우에는 '동질성 교육'을 사회 · 윤리 교과에게만 맡기고, 국어 교육 차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의식 구조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의식 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차이는 그 심각성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크다. 남북의 언어는 같은 모태를 가지고 있지만, 남북이 쓰는 언어는 분단 57년 만에 심각할 정도로 달라졌다.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전에 없는 북한의 어휘가 7만여 개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언어의 차이는 1966년 김일성이 언어학자들과 나눈 담화를 계기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났다. 그 후 남북의 독자적인 국어 순화 운동, 언어 규범의 변경 · 개정 등의 언어 정책과 국어교육 정책이 오늘날의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언어의 가장 큰 효용은 의사소통이다. 언어의 소통은 민족 구성원들 간

의 동질성 확인은 물론, 세대 간이나 공동체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언어의 차이는 결국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결속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민족 구성원의 의식과 사고 양식 등의 차이를 좁혀 가는 길이기도 하다. 때문에 남북 언어의 통일과 언어 복원이 시급한 때이다.

그 동안 남북한의 언어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국립 국어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학문적 성과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남북 언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학문적 성과들이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연구 성과들은 언중들 사이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일 대비 교육이 사회 교과,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국어 교육은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동안 남북한 모두에서 상대 언어를 부정적으로 다뤄왔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언어가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언어이며 공산주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언어라 하여 일반인들이 북한어를 자유롭게 접하는 것을 제한하였다.[1]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일반 대중들은 북한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어 자료를 제

1) 그 동안 학교통일 교육은 반공교육, 통일 · 안보교육, 통일 교육으로 변천해 왔고, 따라서 대북 인식도 적대적 인식에서 이중적 인식 그리고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반공교육기는 미군정기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1945~1987)이고, 통일 · 안보교육기는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1)이며, 통일교육기는 제6차 교육과정기(1991년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용원, 2002)

한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어 북한어와 관련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었으나, 북한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몫이었다. 대중들은 여전히 북한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남기심 외(1989:81)에서는 "종종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의 '문화어'가 표준어의 사생아, 아니면 정치적 소수 집단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된 우리말의 변종쯤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의 표준어가 이 이상 민족어의 '표준어'가 될 자격이 없으며, 침략적 외세로부터의 외래어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고 오염된 '민족어의 수치스러운 부분'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남북 모두에서 보이는 상대 언어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동질성 회복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남북은 상대방의 언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언중들의 인식의 변화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변화될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 때문에 북한어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 온 국어과 영역에서의 통일 교육에 대해 반성하고 더불어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어 이해 교육은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어휘, 억양 등의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 학습 방법과 다양한 수업 모형 개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의 차이에 대한 교수 · 학습은 이질성의 심화를 부각시켜서는 안된다.[2] 남북한의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 지금까지 북한어 관련 연구는 '차이'라는 용어와 '이질화'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이질화'라는 용어는 '본바탕이 달라짐'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언어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차이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상대 언어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사

남북한의 언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1970년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언어 정책론의 관점, 국어학의 관점,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김민수(1985)를 필두로 북한어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국어학자가 북한어와 관련된 논문을 썼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현재 북한어에 대한 연구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3)]

북한의 언어 정책과 실태에 대한 연구는 김민수(1989), 고영근(1989), 북한 언어 연구회(1989), 전수태 · 최호철(1989), 정도복(1989), 국립국어연구원(1992)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북한의 언어 정책을 이데올로기와 언어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남북한 언어 정책을 비교하였다.

국어학적 관점에서는 문법에 관한 연구와 어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문법에 관한 연구는 김민수(1978)를 시작으로 신창순(1986), 고영근(1988), 김영아(1989), 임홍빈(1989), 전수태 · 최호철(1989), 남성우 · 정재영(1990), 신현숙(1990), 심재기(1990), 장영자(1991), 성광수(1993), 하치근(1993), 임홍빈(1997), 고영진(1999), 남기심(1999), 우형식(1999) 등

그 본바탕은 같으며,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연구원(2001)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놓았다.

이 있다. 여기에서 음운, 형태, 통사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준발음 등의 언어 규범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어휘에 관한 연구는 신현숙(1988, 1989), 김병욱(1993), 박영규(1996), 국립국어연구원(1995) 등이 있고, 문화어에 대한 연구로는 심재기(1988), 이승욱(1989, 1996), 김정숙(1989), 위금희(1998) 등이 있다. 남북한 국어 순화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이은정(1991), 윤범호(1996) 등이 있다.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허숙(1990), 전수태(1992), 성은주(1994), 윤경희(1999), 김성아(1999), 남인영(2000), 소강춘(2000) 등이 있다. 허숙(1990)은 북한의 취학적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전수태(1992)는 남북한 언어의 어휘 차이에 관심을 갖고 국어 교과서를 분석 · 정리하였으면, 성은주(1994)는 남한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1 · 2 · 3 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북한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비교 · 분석하고 있다. 이인제(1996)은 북한의 국어 교육에 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북한의 국어과 교육의 실상을 바르게 진단한다는 목적 아래, 북한의 교육 과정안, 교수 요강, 국어과 교과서, 국어과 교육 관련 이론서 등을 북한의 인민 학교와 고등중학교 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경희(1999)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5 · 6학년 국어 문학과 남한의 고등학교 국어 상 · 하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를 분석하여 남북한의 언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성옥(1999)은 남한의 중학교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1 · 2 · 3 학년 국어 교과서 내용 중,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였고, 김성아(1999)는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출판된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를 남한의 교과서와 대

비하여 남북한의 문법 교육을 고찰하고 있다. 남인영(2000)은 북한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를 계량적으로 고찰하여 북한의 기본 어휘 양상을 살피고 있다. 소강춘(2000)은 북한의 고등중학교 1 · 2학년 '하반기 국어 교수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어 교육 실태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국어 교육의 문제는 별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남북의 교육의 차이에 대한 언급 정도가 있을 뿐이며, 그 동안 이뤄진 연구들은 북한어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접근한 경우들이다. 북한어가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어휘 등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차원의 접근을 통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학문적인 연구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수업에서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언어는 학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각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적 부분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교수 · 학습 차원에서의 현장적 접근이 없고,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본고에서는 통일에 대비하고 촉진하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어교육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국어교육의 모형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남북한 언어의 차이

1. 남북한의 언어관

언어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언어관이다. 언어관은 언어 연구의 개척뿐만 아니라, 언어 문제의 해결이나 언어 교육의 경영에도 근본적인 관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어관은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언어가 사고의 수단이라는 도구관이고, 둘째는 언어와 사고는 양면으로서 분리될 수 없다는 일체관이며, 셋째는 언어가 사고를 형성해 간다는 형성관이다. 언어학이나 국어교육의 일반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남한의 언어관은 이들 세 가지가 집단이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대체로 '사고 전달의 수단이자 대상'으로 보는 객관적인 관점이다.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언어이론으로서 유물론적 도구관에 해당한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언어의 자주성을 살려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언어를 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의 힘 있는 도구'로 언어를 바라보고 있다.

남한의 언어관은 독일 언어학자 훔볼트(W. von Humboldt)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개화기의 언어관은 언어를 독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고 식민지 시대의 언어관은 언어와 민족과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추구되었으며 언어가 민족문화 창조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언어에 민족정신이 반영된다는 이른바 세계관 이론이 큰 흐름을 이루었다. 해방 공간의 언어관은 언어와 민족, 국가와 밀접한 상관성을 비롯하여 언어의 공리적 기능을 여러 모로 제시하여 국어 사

랑의 정신을 기르고 이를 교육현장에 실현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처럼 훔볼트를 비롯한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언어관이 남한의 언어 연구와 국어교육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영근, 1994 : 336 참고). 남한은 언어에 민족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언어를 다양한 문화적 생산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보았고 언어가 사람들의 소통을 돕고 인간적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훔볼트의 영향만 강조해서는 남한 언어관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없다. 김광해(2000)에서는 교수 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관'을 논하면서 훔볼트와 피히테의 민족주의 언어관뿐만 아니라 기계적 언어관, 도구적 언어관, 사고력 향상의 언어관 등의 다양한 언어관이 상호 공존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시기마다 어느 한 언어관이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남한 언어관이 특정 언어관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사상에 맞는 언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의 언어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 이론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 이론을 보면, 언어가 인간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하였다(고영근, 1999).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시킨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론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소련의 언어 이론에 영향을 받은바가 크다. 초기 북한의 언어관은 마르의 언어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마르의 언어를 토대 위에 서 있는 상부구조라 보고 언어에도 유물사관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고 보았다. 그 뒤

이 이론은 언어에는 이데올로기기 없다는 스탈린 주장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김일성의 언어정책은 마르크스 · 레닌의 유물론적 언어 사상을 이론화시킨 사회주의 언어 정책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의 언어이론이라고 부르며, 이 이론은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김정일이 심화 발전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언어 이론은 김일성 부자에 의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소련의 사회주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민족주의 언어관과 주체 언어관을 접목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오현 외, 2002).[4)]

북한의 언어관은 김일성이 북한의 언어학자들과 나눈 담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언어관뿐만 아니라 북한이 언어정책에 대한 방침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데서 세계 인민들의 언어 발전의 공통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언어 발전을 세계 공통적인 방향에 접근시킨다고 하여 너무 빨리 우리 언어의 민족적인 특성을 버려도 안 됩니다. 온 세

---

4) 조오현 외(2002)에서는 북한의 언어 정책을 형성한 김일성 1, 2,차 교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의 언어 사상을 도출하였다.
① 언어는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② 언어는 사람들의 교제의 수단이다.
③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 있는 힘 있는 무기가 된다.
④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정통한 사람은 쉬운 언어를 잘 구사한다.
⑤ 대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대중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⑥ 민족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민족성을 나타내는 순수성을 잘 보전하여야 한다.
⑦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새 말을 만들 때는 모든 기관이 통제하여야 한다.
⑨ 언어에 있어 세계 조류를 따라야 한다.
⑩ 한자말이나 외래어 사용을 규제하여야 한다.
⑪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서 발전시키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가 다 공산주의로 되려면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민족적인 것을 살려야 합니다. 민족적인 것만 보고, 세계 공통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반대로 세계 공통적인 것만 보고 민족적인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1964년 1월 3일 담화 中

이 담화에 의하면 언어를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발전, 사회주의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언어관은 차후에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주체언어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언어관은 북한 국어교육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북한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실현할 혁명가를 키우는데 있다. 북한의 『국어교수법』(1973)에서는 국어 교육의 목적을 '정치사상교양'에 있다고 밝히고 정치사상 교양의 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학생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워는 것이다.
② 학생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③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세우기 위한 교육고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국어교육의 목적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고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생활화하는 것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윤희원 외(1997)에서도 북한의 국어교육에 대한 성격 규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에 대한 사상과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어교육은 사회주의 교육학 이론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와 문예에 관한 사상 및 이론에 충실하여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지금까지 대비한 남북한의 언어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남북한의 언어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언어관이 지니고 있는 이념적, 김일성 부자 중심적, 민족적, 도구적, 혁명적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각각의 특성들이 언어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것과 남북한의 언어관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 극복은 단순히 남북한 국어 전문가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나는 언어 현상에 대해 하나의 합일점을 찾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언어관과의 충동을 피해야 한다. 즉 남북의 언어관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언어 통합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언어관은 그 자체로도 교수 학습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학습자들은 언어관과 언어 차이 극복 방안과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남북의 언어관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언어 통합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북한은 언어를 자신들을 통치 이데올로기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 차이 극복에 북한의 언어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극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더라도 북한의 언어관에 상치된다면 북한은 그 방안을 거부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이념 지향적인 언어관을 고려하지 못하면 언어 차이 극복 방안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남북한의 언어정책

남한에서의 어문정책은 민간 학술단체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면 중앙 정부가 수행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가 어느 안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등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어문정책은 중앙 정부가 어문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고, 이를 구속력을 가지고 통제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지닌다.

북한에서는 1960년 이전까지는 주시경, 김두봉과 조선어학회의 업적과 소련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옮겼지만 그 이후에는 김일성의 항일 독립 투쟁 시대의 언어 규범화 분야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 발전시키고 사대주의를 극복하여 주체성을 지키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 대중이 즐겨 쓰는 말에 기초하여 언어정책을 수립하였다.[5] 오늘날 북한의 어문정책은 김일성의 담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단 이후부터 이루어진 북한의 어문정책과 맞춤법 변천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5) 북한언어연구회 편 (1896:26)

① 문맹퇴치

광복 후 1946년부터 약 3~4년간에 걸쳐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다.[6] 그 결과 1948년 약 230만 명의 문맹을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② 한자 폐지

1949년 9월 북한에서는 한자폐지를 단행했다.[7] 그러나 1964년 1월 3일의 김일성 담화에 의하면 한자가 배우기 힘들고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연관시킬 때 동질성 차원에서 일정한 시기까지 써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통일문제와 관련시켜 한자교육이 부활했음을 알 수 있다.[8]

③ 말 다듬기

말 다듬기는 한자폐지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쉽고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자는'[9] 의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1964년의 김일성 담화 발표 이후, 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④ 문화어 운동

북한에서 문화어에 대한 언급은 1966년 5월 14일 김일성 담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

6) 김일성 선집 2권 (북한언어연구회 편저(1989 28) 재인용)
7) 김민수 (1993)
8) 고영근(1994)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초 · 중학교에서 기술학교까지는 2,000자, 대학에서는 1,000자, 모두 3,000자로 우리보다 1,200자나 많은 한자를 교육용 한자로 사정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9) 김민수 (1993)

우리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 경제 · 문화 ·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 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리해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

김일성의 1966년 5월 14일 교시 中[10]

위의 담화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문화어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힘 있는 무기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언어정책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렇게 펼치기 시작한 문화어 운동은 한자어와 외래어의 언어 운동으로서 일종의 '어학 혁명'이라 할 것이다.[11]

북한어에서 문화어에 부여하는 가치는 아주 특별하다. 문화어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언어며 어느 언어보

10) 북한의 자료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11) 남성우 · 정재영(1990)에 의하면 광복 이후 북한의 언어정책은 김두봉, 이극로, 정렬모, 홍기문 등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 언어학적인 지반을 다지고 소련의 사회주의적 언어관과 언어정책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다가 1960년 후반에 와서 김일성 담화를 바탕으로 일대 개혁을 이룬다.

다도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한다. 최정후(1989:118)에서는 “문화어는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우리 민족어 최고 형태이다.”라고 하여 문화어의 우월성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조오현 외(2002:125)에서는 언어는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언어에 우열이 없다는 것은 일반 언어학에서 하나의 정설이지만 북한의 ‘문화어’에 대해 다분히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며, 문화어를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라 하여 앞으로도 의도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습자는 북한이 문화어에 부여하는 자부심과 언어의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모든 언어는 독자적인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언어 상대주의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북한이 왜 의도적으로 문화어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의 표준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문화어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곽충구(2001:24)는 현재의 문화어는 음운(맞춤법의 개정에 의하여 고쳐진 두음법칙 표기 등은 제외)이나 어휘 및 어법적 특징이 중부방언을 기반으로 하여 마련된 표준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북한어의 기본적인 바탕은 어휘상으로 볼 때 서울말이라고 하였다. 문화어와 표준어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하는데 큰 시사점을 준다. 북한을 대표하는 문화어가 실상 남한의 표준어와 근본 바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문화어를 표준어의 한 방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어를 단순히 표준어의 지리적 방언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남기심 · 김하수(1989)에서는 최정후(1989)의 『조선어학개론』을 인용하면서 문화어가 정치 지도자의 즉흥적 아이디어에 의해 창안되어 강요된 언어규범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문화어는 북한

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타당성을 지녔고, 사회 발전의 필연적 열매인 것으로 설명하는 북측의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12] 곧 문화어의 역사적 뿌리는 일제시대의 항일 혁명 투쟁과 그들의 민족어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반제(反帝) 민족 해방론을 두고 있고, 이 시기에 나타난 투쟁 세력의 언어관과 구체적 언어 사용 그리고 언어 운동이 나중의 문화어 형성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는 북측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화어를 단순하게 바라보아서는 북한의 언어관이나 언어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북한과의 언어 통일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피상적인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문화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견해를 수용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무작정 수용한다면 문화어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적 특성, 문화어 우월성을 간과할 수 있게 되는ㅌ 위험이 있는 반면, 거부로 일관한다면 문화어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뿌리, 문화어 형성의 시대적 의의 등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어 북한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정확한 문화어 이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학습자가 북한어의 문화적 특성을 인식할 때에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문화어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학습자 스스로가 문화어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2) 『조선어학개론』 제2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 하신 항일혁명투쟁시기는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시기이며 우리 민족어의 최고 형태인 문화어의 력사적 뿌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3. 남북한 언어의 실태

언어 차이에 대한 기술은 언어에 대한 범주 및 영역 설정 그리고 기술 체재(體裁)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취지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업 모형 개발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그 범주를 언어 규범과 관련하여 그 차이의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 또한 언어 규범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실제 음성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선행 연구가 언어 차이 극복 혹은 동질성 회복 등을 논의하면서 공통적으로 언어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체제와 이념에 따른 언어관과 언어 정책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기보다는 국어 교육과 관련지어 의미 있는 것을 중심으로 언어 차이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 동안 남북한의 언어 차이의 모습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홍종선 · 최호철(1998)에서는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11가지 과제를 제시하였고[13], 이 중에서 ① 표준어, ② 표기법, ③ 국어사전, ④ 규범 문법, ⑤ 국어 교과서 등의 5가지 과제별 분석과 제안을 내놓고 있다. 홍윤표 외(1999)에서는 '한민족 언어 정보화(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빈도수에 근거한 기초 어휘(98 : 1000개, 99년 : 4000개, 2000 : 5,000개 어휘)를 대상으로 남북한 어휘 비교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형별로 선택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맞춤법에 관해서는 연규동(1998)을 참고할만하다.[14]

---

13) 11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어 정책, ② 표준어 정책, ③ 표기법 문제, ④한글 전용 문제, ⑤ 통일 국어사전 편찬, ⑥ 규범 문법 수립, ⑦ 국어교육, ⑧ 학교 교육, ⑨ 사회 교육, ⑩ 국어교사 양성, ⑪국어 정보화 등이다.

14) 그 보기로 다음을 예로 들어 본다.

국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중에 하나이며,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어, 국어 내에서도 공통적인 특징과 더불어 개별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남과 북의 언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 언어의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라진 것보다는 같은 것이 훨씬 많음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북한어에 대한 연구도 확산되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급속히 팽창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15)]

노동(勞動)

1. 표기 : <남> 노동 <북> 로동

* 남한은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제 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으로 표기한다. 반면, 북한은 조선말 규범집 맞춤법 제7장 제25항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로동'으로 표기한다.

2. 발음 : <남> [노동] <북> [로동]

* 남한은 두음법칙에 따라 [노동]으로 발음하지만, 북한은 문화어 발음법 제2장 제5항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로동]으로 발음한다.

3. 문법 : <남북>명

4. 의미

1) <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2) <남> 특히 육체를 움직여 일을 함

3) <북>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인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 로동은 모든 재부와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 계급화하며 단련시키는 힘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행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 되고 있다.

* 1), 2)는 남한에서 쓰는 표현이며, 3)은 북한에서 쓰는 표현이다. 북한은 정치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이 개입하지 않은 어휘 의미만으로 보면 남북한 공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은 사람들을 노동계급화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의 하나로서 정신적 노동보다는 육체적 노동을 더욱 강조한 의미이다.

5. 기타

15) 이에 대한 지적을 정승혜 · 권미정(1997)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 이래도 되는가.",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을 참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어에서 '커튼'은 1964년 김일성 교시 이후 '창문보'로 다듬었다가 『다듬은 말』(1986)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창가림'이 되었으며, 『조선말 대사전』(1992)에는 '카텐, 창가림'으로 실려 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를 거쳐 다시 '아이스크림' 『조선말 대사전』(1992)이 되었으나, 금강산 유람선의 북한말 안내, 심지어 통일위원회 남북한 어휘 비교에도 '얼음보숭이'로 잘못 제시되었다. 이는 전국국어교사모임 등의 학습지도안(1997)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발음, 어휘, 의미, 어법, 맞춤법, 문체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발음은 생동하는 언어 음성 언어의 현상이므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직감적으로 뚜렷하게 노출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현복, 1989). 한편, 임칠성(1996)에서는 화법과 관련하여 이중적 양상을 지적하였는데, 언어 차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북한 화법은 주체사상의 규범적 통제라는 인위성과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이라는 자연성에 의한 이중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북한 화법에 대한 남한의 인식은 인위적 주체 사상적 요소[16]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편향적인 인식은 곧 북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감을 낳게 되고 이러한 거부감과 저항감은 통일로 가는 길에 심각한 장벽을 형성한다.

결국, 북한의 화법은 이중적 양상을 보여 사람들이 일상 화법에서는 주체 사상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주체 사상식' 감정 표현은 규범적 통제와 교육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북한 언어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은 일상 언어생활에 있어서 언어 차이가 심하지 않다는 점과 언어 규범의 정비와 국어교육을 통해 언어 차이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 차이와 관련하여 육흔(1996)은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남과 북의 고위급 회담시 쌍방이 약 30% 정도 서로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과 북 언어의 이질화의 심각성을 밝히

16) 그 특징은 반(反)서울성, 선동성, 사상성, 집단성, 계급성 등을 들 수 있다.

고 차이를 규명하려고 했다.[17]

(1) 언어에 대한 사전상의 풀이 차이

[남] 언어는 음성이나 문자를 통하여 사람의 사상, 감정, 의지 등을 표현 전달하는 행위이다.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북] 언어는 인류사회에 고유한 사회적 현상으로써 인간의 본성적 요구인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혁명과 건설의 힘이 되는 무기이다.

(2) 띄어쓰기의 차이

[남] 문장의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북] (1)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 원칙

(2) 독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붙여 쓰는 원칙

예를 들면,

[남]	승리할 것이다	잃어 버리었다	닭 한 마리	사회주의 문화농촌
[북]	승리할것이다	잃어버리였다	닭한마리	사회주의문화농촌

이런 점에서 리의도(1993)는 ① 그 동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면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18], ② '이질화'라는 표현이 합당하려면 그 전에 '동질화'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남 · 북이 갈리기 전에도 우리 언어는 동질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19] ③ 우리는 알게

17) 그 근거로 남북한의 '언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상의 풀이를 비교하여 ① 언어 정책상의 차이, ② 자모 배열순서와 명칭상의 차이, ③ 갈수록 달라진 맞춤법, ④ 문법상의 이질성, ⑤ 사잇소리의 불동점, ⑥ 실생활 중에서의 언어 차이 등을 들었다. (표기는 원문에 따름)

18) 이는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빈번해진 접촉 과정에서 여러 자리에서 남 · 북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런 때에 사소한 것을 제외하면, 언어 차이가 심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모르게 그 모든 책임을 북쪽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려 하지 않는가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남북 언어의 갈래별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차이의 현상보다는 원인에 주목하여 대별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구별보다는 언어 차이 극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

[리의도(1993) - 남 · 북한 언어 차이]

1) 방언적인 차이[20]

① 말소리 ② 어휘 ③ 말본 형태소 ④ 통어

2) 언어 규범의 차이

① 발음법 ② 한글맞춤법 ③ 문장부호법과 띄어쓰기

④ 어휘 - '표준어'와 '문화어' ⑤ 말다듬기[21]

3) 이념 · 체제에 따른 차이

① 내용만 새로 부가된 어휘[22] ② 새로 생긴 어휘[23]

이응백(1989)은 북한의 '조선말 규정집'에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대비하면서 남북 국어의 동질성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보았다. 그는 자모의 이름이나 활용 어미의 표기, 어례 표기에서 약간

---

19) 오늘날 남쪽만 보더라도 중부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의 언어에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오래전부터 남 · 북의 언어는 꽤 다른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질화만 강조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질화'라는 표현보다는 '차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 동북, 서북, 중부, 동남, 서남, 제주 등의 6개 방언 구역을 나누고, 동북(함경도), 서북(평안도) 방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1) 말다듬기는 남과 북에서 제각기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듬기의 대상으로 삼는 요소는 남북이 대체로 비슷하며, 다듬은 결과가 똑같거나 비슷한 것도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은정 편(1991)에 풍부하게 실려 있다.

22) 천리마, 동무, 민족어, 수령, 승냥이, 궁전, 어버이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런 식의 뜻풀이와 방법은 전통적인 민족어를 왜곡한 것으로 '이질화'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3)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와 생활양식에 의해 생긴 말들로, 북의 량권, 밥공장, 문화 휴식터, 복수 기록장 등과 남의 달동제, 멸공, 치맛바람, 학군(學群), 새마을 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 차이를 보았으나, 가장 큰 것은 두음법칙의 부적용으로 보았다. 말다듬기[24]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문화어'는 '표준어'와는 거리를 더욱 멀리하고 있다고 보았다.[25]

우리의 국어 규범은 우선 8 · 15 광복을 경계로 그 전후가 달랐다. 이전에는 1930년 2월에 공포된 소위 '언문 철자법'이 공식으로 시행되고, 1933년 10월에 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일부 민간에서 씌었다. 광복이 되자, 이 '통일안'을 남북 구별 없이 전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이후에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북한에서는 1949년 9월의 전반적인 한글 전용 실시에 앞서 1948년 1월에 독자적인 '조선어신철자법'을 제정하여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김민수 : 1989).

북에서 계속해서 조정한 '조선어 철자법'(1954.9), 다시 제정한 '조선어 말규범집'(1966.6) 및 그 수정(1987.5)을 통하여 네 번 바꾸었다.[26] 남에서는 1988년 1월에 비로소 개정하여 1989년 3월에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그 사이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바꾸거나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남북의 개별적 개정은 결국 그 격차를 점점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제 남북 간의 공동 조정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지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현재 그 규정상(規程上) 남북 간의 차이는 어는 정도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24) 말다듬기는 한글 전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1949년 초부터 싹튼 것으로 1964년 언어 정책에 관한 김일성의 첫 번째 담화문이 발표된 때부터 1972년 사이에 약 5만 개의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놓았다.

25) 표준어와 문화어는 우리 민족어의 한 이형태를 규정하는 언어 규범 차이를 가졌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 인정과 동질성 회복 등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6) 북은 1966년 개정 '규범집'에서 많은 격차가 났으며, 1987년 수정에서는 독자적인 문화어를 표방하여 공개적으로 남북의 두 언어가 양립되는 상태가 되었다. 즉, 남쪽의 표준어, 북쪽의 문화어라는 두 표준어가 양립하게 된 것이다.(김민수, 1989)

(3) 국어의 규정(規程)에 대한 남북한 대비

	남　　한	북　　한
철자법	「한글 맞춤법」(1988.1) 제1~4, 6장 제5장 띄어쓰기 [부록] 문장부호	「조선말 규범집」(1987. 5) 맞춤법 (총칙, 7장) 띄어쓰기 (총칙, 5장) 문장부호법 (총칙, 20장)
표준어	「표준어 규정」(1988. 1)	
외래어	「외래어 표준법」(1986. 1)	문화어 발음법(총칙, 10장)
로마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1)	「외국어적기법」(1981. 10)

남북한 어문 규정의 대비

위의 표는 현행 규정의 대조표이다. 각각의 필요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아직은 공통점이 많은 것이 다행이나, 문제는 날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민족의 분열을 향한 민족적 이질화의 단적인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남 · 북 간의 공통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27]

① 가로쓰되 내려쓸 수 있다는 것. 즉, 내려쓰기를 금하지 않음.
② 한글을 모아쓰기로 한다는 것. 즉, 가로 풀어쓰기를 하지 않음.
③ 띄어 쓰며 문장부호를 사용한다는 것. 즉, 어렵게 붙여 쓰지 않음.
④ 표기를 규칙에 따라서 발음한다는 것.
⑤ 새받침을 써서 형태주의를 취한다는 것. 즉, 표음주의를 취하지 않음.

27) ①과 ②는 남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것이나, ③ 이하는 원칙만이 공통되는 것이다. 특히 ③과 ④는 규정을 정하기에 따라 실제로 많은 차이가 빚어질 성질의 것이다.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에 따라 국어 교과서에 사용한 언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먼저, 표기에 있어서는 '사이시옷' 표기 여부로 달라진 말, 어두음 · 어중음이 달리 표기되는 한자어, 그 밖에 표기가 다른 말들, 띄어쓰기가 다른 말들이 확인된다. 어휘에 있어서는 동음이의어, 이철동의어 혹은 이음동의어, 북한이나 남한에만 존재하는 단어, 북한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속어와 비어, 전투적인 용어들에서 남북한이 차이를 보인다. 또,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성구와 속담이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문장에서는 문장의 형식과 의미가 상이한 것이 있다. 문장 구성 요소 간에 맺는 공기 관계, 문체, 문장의 길이, 문장의 의미 등에서 상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문체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 김일성과 그의 존비속이 주체로 쓰인 문장은 모두 '하십시오체'로 되어 있다. 이것은 김일성과 그의 존비속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남북한 교과서에 사용된 언어가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통 요소가 더 많이 있고, 서로의 언어 가운데 다듬고 순화된 좋은 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윤희원 외(1997)에서는 남북한 간에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국어교육을 통하여 언어를 통일하고 민족의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첫째, 남북통일 시대에 적용할 남북 통합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 모형을 연구[28] 할 필요성과 둘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국어교육에서 무엇을 과도기적인 교육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28)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통일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국어 교육학자 및 교사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 그 전(前) 단계로 개발 모형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4) 맞춤법 차이

1) 총칙의 차이

[남]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기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습관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29]

총칙에서 보여주는 것은 남한의 경우 소리에 충실하되 어법도 고려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형태주의를 고수하되 부분적으로 소리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2) 두음법칙

남한에서는 어두에 'ㄹ'이 오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한자어를 발음대로 적는 표음주의가 아니라 원래 모양을 유지하는 형태주의로 적기 때문에 'ㄹ'은 모두 그대로 적는다. 어두에서 'ㄴ'이 'ㅕ, ㅛ, ㅠ, ㅣ'와 결합된 경우 역시 남한에서처럼 'ㅇ'으로 적지 않고 'ㄴ' 그대로 적는다.

[남] 양심 역사 요리 융성 이유 예절 누적 내일 여자 요소

[북] 량심 력사 료리 륭성 리유 례절 루적 래일 녀자 뇨소

3) 일부 한자어 표기

북한에서는 한자여 閉, 廢, 肺 등을 '폐'로 적는다. 그러나 [레], [게],

29) 「조선말 규범집」(1966) :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였는데 철저한 형태주의에서 많이 완화한 것이다.

[혜]로 발음되는 ‘계’, ‘례’, ‘혜’ 등은 ‘게’, ‘레’, ‘헤’로 적지 않는다.

4) ‘어’와 ‘여’

‘되다’, ‘캐다’, ‘치다’ 등 어간 말이 ‘ㅣ’ 글자가 포함된 합성모음자인 용언에 ‘어’가 붙을 때, 남한에서는 그대로 ‘되어’, ‘캐어’, ‘치어’로 적지만, 북한에서는 ‘되여’, ‘캐여’, ‘치여’처럼 ‘여’로 적는다.

5) 사이시옷과 관련된 표기

단어가 합성될 때 나타나는 사이시옷은 북한에서는 일체 표기하지 않는다. 단, 표기에서 ‘ㅅ’이 나타나지 않을 뿐, 발음은 남한과 같다.

6) 어미류의 차이

어미류의 표기상의 차이가 나는 것과 형태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표기상의 차이는 ‘-ㄹ’ 관형형을 어원으로 하는 ‘-ㄹ까’, ‘-ㄹ꼬’, ‘-ㄹ쏘냐’에서 된소리 표기를 ‘-ㄹ가’, ‘-ㄹ고’, ‘-ㄹ소냐’처럼 예사소리 표기하는 점이다. 형태적인 차이로는 ‘-고자’를 ‘-고저’, ‘-곤 하다’를 ‘-군 하다’, ‘-구만’을 ‘-구먼’으로 표기하는 것들이 있다.

(5) 표준어와 문화어

문화어는 평양의 말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방언에서도 많은 말을 살려서 사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남한의 표준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어휘 정리 문제를 민족 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다듬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결과,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30]는 어휘 분야에서 이질적인 면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목적성이 강한 북한의 언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0) 1966년 5월 김일성은 “서울의 소위 ‘표준어’가 부르주아적, 복고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인민들의 의식 속에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이라며 문화어 지정을 지시했고,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토박이 말로서가 아니라 북한말의 모든 우수한 요소들을 집대성한 언어”라고 말한 점에서 남한의 표준어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남한의 경우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Ⅲ. 북한어 이해 교육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

북한어 이해 교육은 북한어 이해가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때, 북한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북한어를 표현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한어를 북한 사람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는 북한어의 언어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이해 방식처럼 발음, 어휘, 몇 가지 문장 · 문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북한어를 온전히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뿐더러 단편적인 사실을 통한 이해는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북한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문제이다.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남과 북의 여러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언어 차이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는 언어의 문제를 순수하게 언어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남한 내의 언어도 시간상으로 대비시켜 보면 그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은 남한과 체제를 달리하며 상대적으로 공간상 다소 멀리 존재한다. 언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문제는 그 '차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그 '언어 차이'를 교수 · 학습 장면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일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언어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고 '이질화'되었다고 하기보다는[31] 그 차이의 실상과 원인을 알고, 이 문제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사용 어휘가 다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상대방의 어휘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언어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상대방의 언어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북한어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북한 사람들과의 실제 대화, 북한의 문학 작품, 방송과 신문, 출판물과 다양한 종류의 글 등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트의 접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사용 어휘가 다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상대방의 어휘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언어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상대방의 언어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이해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국어교육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바로 북한의 언어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태도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

31) 우리교육(2000. 9월호 : 114·121) 특별 게재, 서영섭 인터뷰. "7천 5백만의 규모로 민족을 생각하라." - 민족, 민족어, 민족교육 -.

(문) : 50년의 분단이 남과 북의 언어를 이질적으로 만들었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소통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답) 말이 틀립니다. 이질이 아닙니다. 동질입니다. 절대 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수량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어나 북의 조선어나 한국의 한국어나 동질입니다. 남북의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꼭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질이냐, 언어의 핵심은 문법인데, 문법이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밥을 먹는다'하고 당신들도 '밥을 먹는다'고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다름은 없다. 근근히 몇 천년 동안 내려온 언어가 50년 동안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이 다름에 따라서 상용어가, 새 단어들이 생기고 달라진 것일 뿐이지 무엇이 다르냐고 말을 합니다.

다. 북한어의 언어 · 문화적 특성을 아는 것이 중국어나 영어의 문화적 특성을 아는 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중국어나 영어의 특성을 아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혹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어를 이해하는 것은 남한어와 북한어의 공존 ·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즉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습자들이 언어의 통일 과정, 통일 이후의 여러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도록 돕는 것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자세를 지녀야만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는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언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태도 형성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북한어 이해 교육의 실태

남한은 단독 정부 수립 후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6차 교육과정부터 비로소 북한어를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북한어에 대한 언급은 국어 교과서가 아닌 문법 교과서에서는 5차부터 보이지만 그 양과 내용은 미약하다.

5차 문법 교과서에서 ‘Ⅰ. 총설 → 1. 언어와 문화, 사회 → (4) 국어와 국문’ 소단원에서 “1945년 국토 분단 이후에는 남북한 사이에 적지 않은 언어 차이가 생겼다.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문화어 운동을 벌여, 평양 중심으로 우리말을 그들 나름대로 다듬어 가고 있어, 한반도의 공용어가

둘로 나뉘어 가는 처지에 놓여 있다.", "오늘날, 남북한은 다 같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으나, 맞춤법에 있어서 양쪽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은 정도이다.

6차 문법 교과서에는 두 단원에서 북한어를 다루고 있다. 처음에는 'Ⅰ. 언어와 국어 → 2. 국어의 특질 → (1) 음운의 특질' 소단원에서 국어의 음운 특질을 설명하면서 북한말을 잠시 인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 그리고 '로인(老人)'을 [노인]으로, '녀자(女子)'를 [여자]로 발음하는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오늘의 북한말에서 이를 [로인], [녀자]로 발음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두 번째로 'Ⅷ. 표준어와 맞춤법 → 2. 맞춤법 → 심화학습'에서 북한어를 다루고 있다. 고영근(1993)에서는 '심화학습'에서 북한어를 다룬 것이 "표준어/문화어, 맞춤법, 자모의 차례, 한자어 적기, 띄어쓰기에 걸쳐 남북한의 언어규범상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화합과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6차 문법 교과서 '심화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남북한 언어가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전제를 두고 기술되어 있다. 그 차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어, 맞춤법, 자모의 차례, 한자어 적기, 띄어쓰기를 선정하여 차이점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에게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만 강조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북한어가 5차와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간략히 언급되었고 7차 문법 교

과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법 교과서에서 북한어를 소홀히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다루었음을 입증하여 준다. 6차와 7차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북한어 관련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32]

	6차 국어 교과서		7차 국어 교과서
제목	남북한의 언어 차이	북한의 말과 글	남북한의 언어
학습목표	·남북의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말 할 수 있다. ·남북 언어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남북한의 언어에 차이가 발생된 원인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한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32)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북한어 관련 단원을 아래 표와 같다.

		교육과정	교과서
6차	중학교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박갑수, 남북한의 언어 차이, 국어 3-1
	고등학교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알고, 국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남성우, 북한의 말과 글, 국어 (하)권
7차	중학교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최호철, 남북한의 언어, 생활 국어 3-1

내용	① 말소리 : 두음법칙, 자음동화 ② 어휘 ③ 문장의 어법 · '-으로' 호응 문제 · '-(으)ㄹ 데' 대하여 · '나다' 연결 문제 · 사동 접사를 활용한 조어 ④ 맞춤법 · 사이시옷 · '-여/-였-' · 원음표기 · '이(齒)'의 합성어 · 띄어쓰기	북한의 언어관, 언어 정책, 언어 변화 ① 발음 · 모음 'ㅓ, ㅡ' 원순화 · 모음 'ㅚ'의 발음 · 'ㅣ'모음 역행 동화, 절설 모음화 · 두음법칙 · 된소리가 많이 사용됨 · 억양과 리듬 ② 문법 · 조어법 · '들' 사용 · '-(으)ㄹ 데에 대하여, -(으) ㄹ 대신에' ③ 어휘 ④ 문체 · 짧은 문장과 명령형, 선동형, 감탄형, 직설적인 욕서로가 격렬한 표현, 극존대 표현	① 발음 : 두음법칙, 자음동화 ② 억양과 어조 · 표준어 : 낮은 억양, 부드럽게 흘러가듯 · 문화어 :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 단어나 어절을 끊어서 말함. ③ 어휘

6 · 7차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북한어 이해 교육의 학습 목표 및 내용

6차 교육과정부터 북한어 관련 단원이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은 통일 대비 교육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상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야 비로소 나타났다는 점,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북한어 관련 단원이 빠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북한어 이해 교육은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어지식 교육의 교수 학습 내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북한어를 분석한다면 '음운, 어휘, 의미, 문장, 이야기(텍스트), 규범, 표기'의 영역에서 언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음운에서의 두음법칙 비적용, 어종(語種)에서 고유어의 고빈도 출현과 외래어 · 한자어의 사용이 드문 점, 통사와 텍스트 차원의 고유한 특성 등을 국어지식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33] 지금까지는 언어의 세부적 단위, 즉 음운과 어휘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문장 층위 이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6 · 7차 국어 교과서에서도 북한어의 발음, 어휘, 차원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는 것도 문장, 텍스트 차원의 연구 성과가 미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문장과 문체적 특성이 기존의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간략한 언급에 그쳤고, 문장 · 문체 특성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존 교과서의 한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7차 개정 교육과정 문법 교육에서 '(3) 국어와 얼 → (나) 국어의 미래 → ① 통일 시대의 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북한어 이해 교육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34]

---

33) 이관규(1999)에서는 북한의 어문 규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 통일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남 . 북한의 어문 규정을 비교 및 대조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34) 7차 개정 교육과정의 통일 시대의 국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

㉯ 지역, 성별, 세대, 계층, 인종 간 언어 갈등이 있음을 이해하고 현 국어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여 해결책을 탐구한다.

3. 교육의 내용

교수 학습의 내용은 기존 국어 지식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어지식 교육에서 교수 학습되는 내용과 관련된 북한어를 선정하여 텍스트 분석 활동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텍스트 분석 활동의 내용을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문법』교과서에 기대어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대단원	중단원	관련되는 북한어 학습
1, 언어와 국어	1. 언어의 본질	**북한 사회에서의 언어 본질에 대한 인식**
	2. 언어와 인간	**북한어와 북한 사회의 관계**
	3. 국어와 한글	한글에 대한 북한의 인식
2. 말소리	1. 음운과 음운 체계	**북한 사전의 음운 배열 순서**
	2. 음운의 변동	**북한어의 음운 변동**
3. 단어	1. 단어의 형성	북한어의 단어 형성 방법
	2. 품사	북한어의 품사 분류
4. 어휘	1. 어휘의 체계	**북한어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사용 현황**
	2. 어휘의 양상	**2. 어휘의 양상북한 방언, 은어, 속어, 관용어, 속담, 전문어, 새말**
5. 문장	1. 문장의 성분	북한 문장의 성분 분석
	2. 문장의 짜임	분한 문장의 짜임 분석
	3. 문법의 요소	**북한어의 종결,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표현**

6. 의미	1. 언어와 의미	남한과 북한에서 달리 사용되는 단어의 뜻과 쓰임새
	2. 단어 간의 의미 관계	남북한 언어 간의 의미 관계 파악
7. 이야기	1. 이야기의 개념	북한 이야기를 읽고 뜻 파악하기
	2. 이야기의 요소	북한어의 지시, 높임, 심리적 태도, 생략 표현 조사
	3. 이야기의 짜임	**북한어의 이야기 구조, 내용 구조, 형식 구조 파악**
8. 국어의 규범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북한에서의 표준어와 표준 발음**
	2. 한글 맞춤법	**북한어의 맞춤법**
	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북한에서의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문법 교과서를 통해 살펴 본 북한어 이해 활동 내용

위의 표에서 강조된 부분은 남북한 언어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 북한어 이해 교육 시 모든 영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 앞으로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한 단원이나 특정 영역에서만 지나치게 한정되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살릴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어 이해 교육의 교수 학습 내용에서 북한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35] 하나의 언어적 특성을 교수 학습함에 있어서

35) 북한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 중에 반드시 교수 학습되어야 할 것으로 북한의 언어관과 언어 정책을 들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어관이 북한어에 끼친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어의 문화적 특성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언어관을 실질적으로 언어생활에 반영하는 언어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중요하다.

그와 연관된 언어 문화적 특성을 교수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즉 북한어 경어법의 특성을 다룸에 있어서 경어법의 언어적 특성뿐만 아니라 김일성 부자에 대한 특별한 존칭을 사용하는 경어법 문화를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옥련(2000)에서는 총련중앙국어지도위원회(1980)를 자료로 삼아 북한의 은어 문화를 살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도 은어가 존재하며 체제의 억압과 사회에 대한 분만을 은어라는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전문 서적을 텍스트로 삼아 북한의 은어 문화를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자도 북한어의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언어 문화적 특성 이해는 북한의 입말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텍스트를 입말 텍스트와 글말 텍스트로 나눌 때(민현식, 2003b 참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북한의 입말 텍스트를 접할 때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누어 보거나 방송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의 입말이 남한의 입말과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입말 텍스트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북한의 언어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어의 독특한 억양과 발음은 북한의 언어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화법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언어문화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특성은 태도 교육과 연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본래 하나였던 언어가 분단 때문에 두 언어로 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분단이 극복되어야 하는 미래의 시점에는 언어의 차이도 극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래 뿌리가 같은 북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어와 차이만을 부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차이만을 언

급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에 대한 방관적인 자세나 남한어에 대한 우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 차이를 강조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남북한 언어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바탕 위에서 차이를 인식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언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화고 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 형성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체계

국어지식 교육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으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의 언어문화 등과 같은 총론적인 특성이 다루어짐과 동시에 북한어의 음운, 어휘, 문장, 텍스트 차원의 각론적 특성들도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북한어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적 특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영향과 반영'이라는 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북한어 문화는 오늘날의 북한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북한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언어문화가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을 전적으로 규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예로, 북한에서는 강제적인 언어 정책을 통해 외래어를 순화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라져 순화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 어휘 체계에는 외래어 순화 정책이 효과를 거둔 어휘와 대중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들이 혼재되어 있다.[36] 즉 언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언어 형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띄어쓰기 역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띄어쓰기 규범의 변천은 다음처럼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민현식, 2002c)

가. 제 1기(1945~1954) : 통일안 및 '조선어신철자법' 시대
나. 제2기(1954~1966) : '조선어 철자법' 시대
다. 제3기(1966~1987) : '조선말 규범집 시대
라. 제4기(1987~2000) : 개정 '조선말 규범집' 시대
마. 제5기(2000~현재) : 개정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

위의 변천사를 보면 지금까지 북한의 띄어쓰기 언어 현상은 다섯 번에 걸쳐 변화를 겪었다. 제2기는 정치적 영향, 제3기는 김일성 교시의 영향과 같은 언어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제4기와 제5기는 북한어 자체의 변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북한어의 언어 규범을 고정 불변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 변화의 원인에는 언어관 · 언어정책으로 대변되는 언어 문화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을 통해서 언어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36) 북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외래어를 순화한다고 해도 언중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된다. 김승철(2003)에서는 외래어 수용 양상을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조선말 대사전에는 올라 있으나 현실에서는 쓰이지 않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서적 등에서 외래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외래어(예 : 드라마), 2) 북한 현실에서 빈번하게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나 언론, 출판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외래어이자 사용 시 의미가 다른 경우(예 : 마후라), 3) 남한에서 문화와 산업 발달로 고착 된 외래어가 북한에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외래어(예 : 싸이렌), 4) 과거에는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외래어(예 : 꼬마씨야), 5)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되는 경우 (예 : 캬라멜-기름사탕)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에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극존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높임법 체계와 그 사용 양상을 통해 김일성 부자를 특별히 대우하는 북한의 높임법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언어문화는 변화가 매우 더디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언어 현상을 통해서 북한의 언어문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적 특성은 언어 문화적 특성에 종속된다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은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어 이해 교육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가지 목표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물론 국어 교육의 어느 한 영역이 북한어 이해 교육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교육에서의 각 영역, 즉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문학 영역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북한어에서는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문학을 남한에서는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문학과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특징적 언어 사용과 문학 작품을 남한과 비교하는 것 이상의 연구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기 쉬운 한계들이 있다. 또한 북한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의 언어 기능과 문학 비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북한어 이해'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국어지식 교육에서 북한어에 대한 효과적이면서 포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37] 그

이유를 국어지식 교육의 목표, 내용, 7차 국어지식 교육에서의 지향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문법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의 내용이 통사론을 벗어나 국어와 언어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언어생활의 실제 국면을 강조하여 문법 지식을 일상생활에 응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국어의 전반적인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도 탐구 학습이라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을 도입하여 문법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국어지식 교육은 기존의 문법 교육에서 다루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법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한계들을[38]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성격이 강하고 앞으로 문법 교육이 지행해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춘근(2002:76)에서는 5차부터 7차까지의 문법 교육 과정에 나타난 문법 교육의 목적을 분류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9]

---

37) '국어지식'이라는 용어는 이전에 '문법'이라는 말로 통용되었다. 흔히 학교에서 교수 · 학습 되는 문법을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교육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전까지 불리던 '학교 문법'이라는 용어를 대치하는 것이 김광해(1997)에서 제시한 '국어지식'이라는 용어이다. 김광해(1997:71)에서 '국어지식 교육'의 개념을 확보할 필요성으로 "문법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서 전향적인 시각에서 국어 및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즉 학습한 문법지식이 곧바로 문장 생산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의 의미 변별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거나, 오늘의 국어 문제를 인식하고 국어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국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설계하는 등, 실제 언어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38) 김광해(1997)는 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문법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점, 문법 교수 방법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덧붙여 학계의 문법 연구자들은 전문 분야에서 연구된 문법 이론을 적당히 압축하면 교육용 문법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였고, 학생들이 왜 문법을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전혀 고찰된 바가 없었던 것이 학교 현장 및 학계에서 지금까지 문법 교육을 반성하는 목소리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시작하고 있다.

39)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교육의 목적을 제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지식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힘
	(현대) 국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
	국어의 변화 과정 이해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
	국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해]
기능	효과적인 국어 생활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는 능력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
태도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태도]
	국어의 순화에 이바지하려는 뜻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국어를 사랑하는 태도

5 · 6 · 7차 문법 교육의 목적

<5차>

국어 과목 (특히 '언어' 영역)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1) 현대 국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2) 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3) 국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6차>

고등학교 '문법' 과목을 국어 과목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언어의 본지로가 국어의 특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고, 국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과 민족의 언어인 국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가. 현대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나. 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k한다.

다. 국어의 순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7차>

국어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 및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국어를 올바르게 상요하려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

위의 표의 구분을 통해 지금까지 문법 교육의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7차 국어지식 교육도 위의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내용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관규(1999)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학교 문법의 내용 체계를 정리하면서 이들 영역을 크게 지식, 기능, 태도로 종합하였다. 따라서 국어지식 교육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은 지식, 기능, 태도의 관점에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어 언어적 특성 이해, 언어 문화적 특성 이해, 능동적 태도 형성을 균형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어 지식 교육의 지식, 기능, 태도의 관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식'과 '기능' 영역에서 북한어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태도' 영역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해(1997)에서는 국어지식 교육의 지향점을 논하면서 지식을 다루는 '우리말 알기'와 태도를 다루는 '우리말 가꾸기'라는 커다란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두 항목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교육 장면 속에서 동시에 전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응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0]

닌다.

가.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나.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라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

다. 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40) '알기'와 '가꾸기'라는 용어를 북한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알기'는 '지식'으로, '가꾸기'는 '태도'로 바꾸었다. '지식'의 내용 영역으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측면만을 생각하면 언어적 특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남북한 간의 문제는 언어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는 북한어의 언어문화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교수 학습 내용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실제 수업 현장에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래를 주로 다룰 수밖에 없으나 북한의 다양한 언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북한의 언어문

<table>
<tr><th>대영역</th><th>중영역</th><th>소영역</th><th>목표</th></tr>
<tr><td rowspan="15">지식</td><td rowspan="7">북한어 문화</td><td>언어관</td><td rowspan="15">· 북한어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td></tr>
<tr><td>언어 정책</td></tr>
<tr><td>언어 예절</td></tr>
<tr><td>언어 심리</td></tr>
<tr><td>……</td></tr>
<tr><td>성별 언어 특성</td></tr>
<tr><td>계층별 언어 특성</td></tr>
<tr><td rowspan="8">북한어</td><td>말소리</td></tr>
<tr><td>단어</td></tr>
<tr><td>어휘</td></tr>
<tr><td>문장</td></tr>
<tr><td>의미</td></tr>
<tr><td>이야기(텍스트)</td></tr>
<tr><td>규범</td></tr>
<tr><td>태도</td><td colspan="2">· 북한어에 대한 태도</td><td>·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갖는다.</td></tr>
</table>

국어지식 교육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체계와 목표

김광해(1997)에서는 ‘우리말 알기’를 위한 교육은 지식 요소에 관한 교육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우리말 가꾸기’라는 방향과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하였다. 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되는 것과, 직접 국어를 다루어 보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경험시키는 과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어 이해 교육에

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서 '지식'과 '태도'는 독립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어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북한어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어지식 교육에서 도입한 탐구 학습 방법도 북한어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어는 남한어와 바탕이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북한어를 남한어와 비교 · 대조해 보는 탐구 과정을 통해 익힌 지식은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킨다는 측면도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의 태도 교육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3. 2. 교수 학습 내용 체계

교수 학습의 내용을 어느 단원에서 다룰지는 교수 학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아 결정하여야 한다. 교수 학습 내용은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국어지식 내용 범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항목과 비교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국어지식 교육의 매 단원마다 그에 해당하는 북한어의 언어 ·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과가 있지만 교수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매 단원마다 관련 북한어 내용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북한어 관련 단원을 지금처럼 별도의 단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 서혁(1997)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서혁은 통일 국어교육의 체계적 접근 방안으로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교과서를 기준으로 볼 때,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했는데 내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다음과 같다.

7차 국어지식 교육에서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은 탐구학습이다.[41] 김광

41) 김광해(1997:112)에서는 탐구 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탐구 학습을 "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전

해(1997)에서는 탐구 학습의 필요성을 지식의 방대함과 불완전함, 탐구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지식이 더 강력하게 내면화될 수 있다는 점, 탐구 경험은 현상을 보는 수단인 '안목'을 길러 준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탐구 학습이 국어지식 교육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 중 지식의 내면화는 북한어 이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탐구 학습을 통해 학습된 북한어 지식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됨과 동시에 바람직한 태도 형성까지 이어진다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남기영(2003)에서 언어를 대상화하여 관찰 · 분석하는 활동이 국어지식의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임을 강조하였듯이, 북한어 관찰 · 분석의 대상이 된다면 국어 지식의 획득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탐구 학습과 연관 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탐구 학습을 구성하는 요소는 '지식, 태도, 과정'의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42]

북한어가 탐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탐구 학습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면 학습자는 북한어 자료에서 남한어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학습자가 기본적인 국어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견한 사례들이 공통점을 찾아내어 일정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어 자료 중에 '력사', '례절', '녀자'와 같은 표현을 발견한 학습자는 남한과 다르게 표기되는 현상에 의문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사고한 후, 북한어가 남한어와 달리 한자어에 있어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와 그로 인해 남북한 간에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 극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정의를 따른다.

42)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정리 하였다.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문제의 정의 → 2. 가설의 설정 → 3. 가설의 검증 → 4. 결론의 도출 → 5.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

대안 마련을 학습자들에게 전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북한어를 탐구학습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는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교사가 도와주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관규(2001)에서 제시한 절충식 탐구 학습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및 교사 · 학생 역할 비율	문제 제기 및 가설 설정(20%)		자료 수집 및 분석(40%)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40%)	
	교사 (15%)	학생 (5%)	교사 (10%)	학생 (30%)	교사 (25%)	학생 (15%)
세부내용	1.선행 학습 확인 2.본시 문제 관련 자료 제시 3.문제제기 4. 가설 설정	1.배경 지식 동원 2.유관 자료 제시 3.문제 제기 동의 4. 가설 설정	1. 탐구에 따른 위험 요소 제거 2. 주시(관찰) 3. 주시(기록)	1. 자료 수집 2. 자료 분석(자료 취사 선택) 3. 자료 분석 합의	1.가설검증 2.결론도출 3.새로운 문제 동의 및 제기	1. 가설 검증(개인별 또는 대표 발표) 2.결론도출 3. 새로운 문제 제기)
백분율	20%		40%		40%	
주체 및 역할	교사 : 선행 학습 확인 및 연계, 자료 준비, 가설 설정(설명)		학생 : 자료 수집 및 분석 교사 : 주시(관찰과 기록), 탐구에 따른 위험 요소 제거		학생 : 가설 검증 및 새로운 문제 제기(개인별 또는 조별 대표 발표) 교사 :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	

절충식 탐구 학습 모형

이관규(2001)에서 절충식 탐구 학습 모형을 제안하면서 교사의 설명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처음부터 북한어를 탐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모든 단원에서 북한어를 다룬다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북한어 자료 선정과 제시, 이에 따른 학습자의 분석 활동,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분석의 결과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학습자가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북한어가 탐구 학습의 대상으로 충분히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북한어 이해 교육의 수업 모형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주안점

북한어 이해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어 텍스트를 탐구 자료로 삼는 것이 단순히 북한어의 언어 · 문화적 특성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 형성까지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교사의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네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다.

1) 교사가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필요 시 수업 활동에 맞게 가공한다.
2) 교사가 텍스트와 분석 활동 안내지를 학습자의 수준과 교수 학습의 목표에 맞게 제공하고 학습자는 안내지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
3) 교사가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필요한 설명을 덧붙인다.
4) 교사는 학습자가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지니도록 돕는다.

이 네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가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고 필요시 수업 활동에 맞게 가공한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 목적에 맞게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텍스트 선정의 대상으로는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북한의 신문, 방송, 문학 작품, 인터넷 자료, 잡지, 교과서 등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은 북한의 체제나 이념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때문에 텍스트 선정 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북한의 신문은 논설, 사설, 교양 기사, 보도 기사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탐구 자료가 될 수 있다. 북한 방송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시청은 불가능하지만 남한의 방송사마다 북한의 방송을 일정 부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교사가 잘 녹화 혹은 녹음 하였다가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별히 방송은 북한어 입말 텍스트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방송을 적절히 활용하면 북한의 발음과 말하기 방식 및 특성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북한 방송은 사전에 검열을 거쳐 방영되기 때문에 교사가 특별히 가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치가 높다.

2) 교사가 텍스트와 분석 활동 안내지를 학습자의 수준과 교수 학습의 목표에 맞게 제공하고 학습자는 안내지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

교사는 선정, 가공된 텍스트를 수업 시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학습 수준에 따라 분석 활동 안내지의 상세 정도를 달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저학년 학습자들에게 북한의 음운 특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분석 활동을 학습자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텍스트의 음운 분석 시 음절의 초성 · 중성 · 종성을 구분하게끔 하여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이 남한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교사는 분석 활동 안내지를 다양하게 고안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교사가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필요한 설명을 덧붙인다.

학습자의 분석 활동이 끝나면 교사는 학습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텍스트 분석을 어휘 차원에서 분석하여 북한어에는 외래어와 한자어가 드물고 고유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교사는 학습자가 분석한 결과와 파악한 특성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왜 북한어에는 고유어 사용이 활발한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함으로써 단순히 언어 현상을 교수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 현상 이면에 특성까지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북한어 이해 교육이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어와 관련된 제반 특성을 이해하고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자세를 기르는 것까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북한어의 언어 ·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특성을 유발시킨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일관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43]

4) 교사는 학습자가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지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분석 활동에서 학습자의 태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텍스트 분석 활동은 언어 ·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까지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44] 북한어에 대한 왜곡된 태도 형성은 북한어를 열등한 언어로 인식하거나 남한어와 근본 바탕이 다른 언어라는 인식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부정적, 단편적 인식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언어 차이 극복의 대안 마련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적인 자세로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존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작업이 지속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지 남북한 언어 차이가 극복될 수 있으며 비로소 남북한 사람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능동적 태도'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 태도'는 다음 세 가지의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

43) 윤희원(1999)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국어 교사는 "통일이 된 이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일, 북한의 언어관 및 언어 정책, 언어 실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의 언어를 조화시켜 나갈 방법,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천에 옮겨야 함을 제안하였다.

44) 김은성(1999)에서도 국어에 대한 태도의 접근법의 하나로 인지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내용 교육을 통해 태도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학습자는 텍스트 분석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 때 남북한 언어 간의 차이점을 편향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남한어의 특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남한어는 북한어는 남한어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든지, 북한어가 순수하기 때문에 남한어는 북한어의 특성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보다는 남북한의 언어 특성을 존중하고 각각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어느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 언어 현상은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특정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특수한 몇 가지 단어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45] 이때 학습자는 사이시옷 표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오늘의 언어 현실에 어느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어느 한 쪽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방식을 열등한 방식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그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둘째, 북한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한어 학습 시 관련되는 북한어에 대해서도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북한어는 하나의 단원으로 처리되었고, 그나마 단원의 설정 여부도 교육과정에 따라 좌우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북한어 관련 단원의 내용도 미약하였기에 학습자들은 북한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북한어는 특정한 시기에 배우고 지나쳐 버릴 언어가 아니라 남한어와 통합을 모색해야 할 동반자적 위상을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학

45) 개정 《조선말규범집》(2000)에 따르면 "소리 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예를 제시하였다. 즉, '샛별'과 '빗바람'은 의미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표기한 특수한 예이다.

습자는 북한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어에서는 외래어를 순수 고유어로 많이 순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습자라면 남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투피스(two-piece)'라는 외래어를 접했을 때 북한에서는 이 외래어를 어떻게 순화하였는지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46] 남북한의 교류가 이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잇는 상황에서 북한의 말과 글을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 기회마다 북한어의 언어적 ·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북한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셋째, 북한어의 특성 중 이념적, 개인 숭배적 언어 현상에 대해서는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어는 순수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체제, 공산주의 이념 선전,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등을 위해 북한어가 의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언어관과 언어 정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북한의 언어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신문, 방송, 교과서 등을 접하면 보다 이념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나 내용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도 언어 특성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언어가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에 이용되는 모습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언어 사용이 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언어 사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비판 의식은 비난 의식과는 다른 것으로 합리적 언어 차이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

46) 북한에서 '투피스'를 '나뉜옷'으로 순화하였다.

2. 북한어 이해 교육 실제 수업 모형

1. 민족(民族)과 언어(言語)
학습 목표 1.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한다. 2.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 들어가기 전에

[준비학습][47]

<영화> 황산벌

1.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언어 차이는 어느 정도였는지 생각하고 말해보자.[48]

(1) 삼국 시대 세 나라 사이에 언어 차이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2) 삼국 통일 이후 언어 차이는 계속 유지되었을지 이유를 들어가며 말

47) 모둠별 과제를 미리 제시하여 설명 중심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둠별 과제 해결을 위한 교사의 안내 혹은 실마리 제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48)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언어 차이가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언어의 차이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의 언어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영화 황산벌의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한다.

해보자.

(3) 고려 시대에는 어느 지방의 방언을 표준어로 삼았는지 말해보자.

(4)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와는 달리 어떤 언어 정책을 취했을지 말해보자.

(5) 일제는 어떤 강압적인 언어 정책을 펼쳤는지 말해보자.

'들어가기'에서는 역사 속에서 언어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둠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역사 속에서의 언어의 차이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지식적 측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학습자가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이때, 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생각열기 [49]

1.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2.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

49) KBS 아름다운 통일 (tongil.kbs.co.kr)북한영상자료실에 탑재된 자료 중, 기타 프로그램 「아테네 올림픽 - 여자 양궁 결승 중계」의 앞부분을 시청한다. 학생들이 이미 봤던 올림픽 중계를 북한에서는 조금 다른 말투로 중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동영상을 본 후, 간단하게 스포츠 해설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어조와 억양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 용어의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생각열기’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활용한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듣기와 말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말 텍스트’를 간과할 수는 없다. 동영상을 통한 ‘입말 텍스트’의 접근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북한어를 단순한 흥미꺼리로 다루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언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다. 이때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어에 대한 이해는 일회적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남북한의 언어에 차이가 생기면 서로의 다른 말을 설명하며 대화를 해야 하므로, 대화의 시간이 많이 걸려 비효율적이며, 또한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활동 1

(가)

… (전략) …

애국의 뜨거운 가슴을 열고

그들이 달려오는 길을

그 누가 가로막았느냐

아 분계선을 자유로 넘나들며

오가는 바람아 떠가는 흰구름아

우리는 이 목소리를 실어가다오

그리고 전해다오

오늘은 우리 돌아서 가지만

마음만은 여기 판문점

이 회담장의 책상 위에 얹어 놓고

간다고

정의와 량심의 필봉을 높이 들고

통일의 길을 함께 갈

그 날을 기어이 함께 찾자고

바람아 구름아 전해다오

-오영재, '전해다오'

(나)

오라, 이 강변으로

우리는 하나, 만나야 할 한 핏줄,
마침내 손잡을 그 날을 기다린다.
그 날이 오면, 끊어진 허리
동강난 세월들 씻은 듯 나으리라.
너의 주름과 나의 백발도
이 땅의 아름다운 꽃이 되리라.
오늘도 여기 서서 너를 기다린다.

- 홍윤숙, 오라 이 강변으로

1. 두 작품이 공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보자.
☞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2. (가) 작품이 북한 시인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남북의 언어 차이를 말해보자.
☞ '량심',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양심'으로 쓰는 남한과는 달리,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량심'으로 표기된다. 즉, 남한은 두음법칙을 인정하고 북한은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 작품은 북한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 받는 오영재의 '전해다오'(1989)이다. 2000년 8월 이산가족상봉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한 그가 1989년 남북작가회담 예비회담 대표로 참가했을 당시 판문점에서 우리 대표단을 기다리면서 쓴 시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 통

일의 염원을 쉽고도 간절하게 그리고 있다. (나) 작품 역시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노래한 시이다.

교사는 두 편의 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작품의 주제와 북한의 언어가 갖는 특질을 찾고, 남북한의 언어가 다름을 알고, 그 다른 점을 올바로 찾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2 두음법칙 및 어휘

남 북 공 동 선 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북 남 공 동 선 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기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을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여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장
김 정 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1. 위의 자료는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의 차이를 찾아봅시다.[50]

☞

50)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도 남북한 어문 규범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자음 표기에서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대체로 'ㄴ'은 'ㅇ'으로, 'ㄹ'은 'ㄴ'으로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대체로 원음을 표기한다. 남한의 규범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10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데, 다만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11항에서는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데, 다만 '리(里 : 몇리냐?)',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등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하였다. 이어 제12항에서는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다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규범에서는 '맞춤법' 제25항에서 한자말은 소리마디마디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국가', '녀자', '뇨소', '당', '락원', '로동', '례외', '천리마', '풍모' 등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궁량', '라사', '라팔', '료기'는 변한 소리대로 '궁냥', '나사', '나팔', '요기'로 적는다.

2. 남한의 경우 '라디오'처럼 'ㄹ'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력사'를 듣고, 남한의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오랜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이질적으로 발전한 두 언어가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통해서 두 언어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때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동일한 텍스트에서 어떤 언어적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학습자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활동 3 띄어쓰기와 어휘

<예문>

개미와 매미[51]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개미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서늘한 그늘에서 《맴-맴-》 노래만 불렀습니다.
《매매야, 넌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오면 뭘 먹고 살겠니?》

51) 인민국어 1학년 (2003)

개미가 걱정해 주었습니다.

《일 없어. 산에도 들에도 먹을것이 가득한데 뭐.》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눈이 하얗게 엎이고 없었습니다.

매미는 개미를 찾아 가 먹을것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너 여름내내 놀기만 하던 매미로구나. 일하기 싫어 하는 너에게 줄건 하나도 없어.》

개미가 말하였습니다.

매미는 눈물만 뚝뚝 흘리였습니다.

1. '개미와 매미'를 읽고, 남한의 언어와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52]

위의 예문은 남한의 학습자가 접할 때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개미와 매미'는 남한에서 '개미와 베짱이'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며, 이념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문학 작품이 정치적, 이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개미와 베짱이'처럼 남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이나 감상하기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석 활동의 대상이 되는 북한어 텍스트로 북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52)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 띄어쓰기 규범'(2000)에서는 "과거 규범이 각 품사별로 띄어쓰기를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세분화해 복잡하고 산만했던것과 달리 토씨가 붙은 경우와 서로 다른 품사 사이에 띄어쓰도록 원칙을 정한것이 특징이다."라고 하고 있다.

국어 시간에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는 북한의 교과서가 북한어의 텍스트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 형식, 내용의 글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는 북한어 텍스트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교과서만 잘 활용하면 좋은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 많아질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공통 화제를 찾아 대화의 장을 활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교과서를 접하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풍성해져 상호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문 A>

의좋은 형제

… (상략) …

그날밤 형은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어요.

(우리가 곡식을 잘 나누었는가? 동생네는 식구가 많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많은 곡식이 있어야 할테지……)

이렇게 생각한 형은 밤이 이슥해지자 고간에 들어가 벼 한가마니를 지고 동생네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동생네 집 고간에 가져다 놓고 돌아왔어요. 동생도 그날밤 자리에 누워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곡식을 제대로 나누었는가? 나와 안해는 젊고 아이들도 우리의 일손을 도와주고있다. 그러나 형님과 형수는 나이도 많고 외롭게 지낸다. 그러니 형님에게 곡식을 더 드려야 한다.)

…(하략)…

<예문 B>

의 좋은 형제

그날 밤 형은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어요.

(우리가 곡식을 잘 나누었는가? 동생네는 식구가 많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많은 곡식이 있어야 할테지……)

이렇게 생각한 형은 밤이 이슥해 지자 고간에 들어 가 벼 한가마니를 지고 동생네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동생네 집고간에 가져다 놓고 돌아 왔어요. 동생도 그날 밤 자리에 누워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곡식을 제대로 나누었는가? 나와 안해는 젊고 아이들도 우리의 일손을 도와 주고 있다. 그러나 형님과 형수는 나이도 많고 외롭게 지낸다. 그러니 형님에게 곡식을 더 드려야 한다.)

…(하략)…

예문 A, B는 실제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지문이다. 글의 내용은 형제의 우애에 관한 것이다. 예문 A는 1996년도 판 교과서이고, 예문 B는 2001년도 판 교과서이다. 두 예문에서 굵게 처리한 부분은 판이 바뀌면서 띄어쓰기가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달라진 부분을 통해서 모든 언어는 변화하며, 북한의 언어 또한 변한다는 것을 인식 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어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두 예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활동지를 제시한다.

예문 A	비고		예문 B
그날밤	합성어		
이슥해지자	본용언+ 보조용언		
들어가	본용언+ 보조용언		
가져다놓고	본용언+ 보조용언	☞	
돌아왔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도와주고있다	본용언+ 보조용언		
집 고간	명사구		
의좋은	합성어		

띄어쓰기 변화 활동지

위의 띄어쓰기 활동지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좀 더 학습자 스스로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가공할 수 있다.

활동 4 높임법

<예문>

사랑의 온실농장[53]

우리 언니 자동단추
살짝 누르면
온 농장에서 보슬보슬
약비가 와요

53) 인민국어 2학년 (2002)

창밖에선 우수수
단풍잎져도
파릇파릇 무우, 배추
싱싱 자라요

우리 언니 자동단추
살짝 누르면
훈훈한 여름바람
불어 오지요

지붕우엔 함박눈
풍풍 내려도
주렁주렁 오이, 수박
무르익어요

일년 사철 풋남새를
보내주시려
온실농장 세워 주신
대원수님 사랑

저 하늘의 해님도
줄수 없었던
푸르싱싱 겨울 남새
안겨 주지요

1. 시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원수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 봅시다.

2.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대원수님’이라는 극존칭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남한의 존대법과 북한의 존대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온실 농장’은 인민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2002)에 나오는 이 동시는 총 6연 2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농장에서 여러 과일,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각 연이 체계적으로 대구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용도 온실농장이 생기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이다. 그러나 5연 4행의 ‘대원수님 사랑’이라는 표현이 이 시를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여기서 교사는 다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시를 교수 학습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첫째, ‘대원수님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둠으로써 학습자가 북한어 시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래 각 연이 마지막 행은 글자 수가 다섯 자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5연의 4행은 여섯 자로, 한 글자가 많다. 이는 ‘원수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대원수님 사랑’으로 의도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 부자에 대해 특별한 존칭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특성이 화자의 서정성을 강조하는 시 텍스트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파악하고, 개인적 정서를 반영하는 시

텍스트에서 왜 이런 표현이 사용하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높임법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 부자에 대한 극존칭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는 이념적 표현을 제거하거나 다른 말로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시를 북한어 이해 교육의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 텍스트를 활용하여 북한어의 어휘, 문장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라면 굳이 이념적 표현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5행의 '대원수님 사랑'을 '부모님 사랑' 이나 '나라 사랑' 등의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학습자가 어휘 문장적 특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54]

활동 5 외래어

스킨과 살결물

어느 날 화장품 선물이 들어 왔다. 선물인데 안 쓰고 그냥 놔두기가 뭐해서 포장을 끌려 보았다.

두꺼운 상자곽을 열었더니 고급스런 병이 두 개가 들어 있었다. 화장품 이름이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손을 찍어 발라서 냄새를 맡아 보아야 한다. 하나는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 분명했다. 겉

54) '사랑의 온실 농장'의 어휘 목록을 보면, '무우'는 남한에서 '무', '싱싱'은 남한에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하다'와 함께 '싱싱하다'로 사용된다. '여름바람'은 남한에서는 합성명사로 사용되지 않지만 여름에 부는 바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우'는 남한에서는 '위'로, '풋남새'는 '풋-'과 '남새'의 파생명사인데 '남새'는 남한의 '채소'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남한어에 '풋채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온실농장'은 '온실'과 '농장'의 합성어로 보여 그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다. '푸르싱싱'도 '푸르'와 '싱싱'의 합성어인데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다. '겨울남새'도 '겨울'과 '남새'의 합성어로서 겨울에 나는 채소와 관련 잇는 뜻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몇 가지 규범적인 특성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단풍잎져도'는 남한에서는 '단풍잎 져도'처럼 동사 '져도'를 띄어 쓰지만 북한에서는 붙여 쓰고 있으며, '지붕우'는 남한에서는 '지붕 위'로 '지붕'과 '위'를 띄어 쓰지만 북한에서는 붙여 쓰고 있다.

에는 로션이라고 쓰여 있었다. 북에 있을 때는 비누 세수를 하는 외에 아무 것도 바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크림을 바르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로션의 용도는 금방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병에 들어 있는 것은 어디에 바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이 스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냄새를 맡아 보니 꼭 향수 같았다. 어쩌다 여자랑 연애하러 나갈 때 친구들에게서 얻어 쓰던 향수 냄새가 생각났다. 물론 그 냄새와는 조금 다른 것도 같았지만 그건 불가리아 제니까 냄새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스킨을 향수라고 낙착 보았다. 향수치고는 냄새가 조금 고약하고 냄새가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헤픈 것이 흠이었다.

'남조선에는 화장품이 좋은 게 많은데 향수는 형편없구만.'

내 나름대로 평가까지 내리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스킨을 향수처럼 썼다. 머리에도 뿌리고 옷에도 바르고 담배냄새 나는 방에도 뿌렸다. 안 쓰던 화장품을 써서 그런지 내 냄새에 내가 이상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괜찮을 것이다. 남조선 남자들은 보통 이런 화장품을 쓰는 것 같으니까. 연예인 친구들에게도 이런 냄새가 났다. 나는 처음에 화장품 냄새가 하도 지독해서 남의 옷에다 코를 갖다대고 킁킁거리기까지 했다.

'이젠 나도 냄새 좀 풀풀 풍기도 댕기겠구만.'

나는 온 몸에 스킨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친구 차를 얻어 탔다. 반응은 금세 왔다.

"무슨 냄새를 그렇게 달고 다녀?"

"향수 좀 뿌렸지."

"무슨 향수 냄새가 그래?"

나는 대답을 유보했다. 향수 이름을 스킨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 상표로 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긴 이 향수가 어디 제품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 향수 냄새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담배 냄새에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그래서 더 많이 바르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국 갈 채비를 서둘렀다.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린 다음 옷을 입고 있을 때였다.

“○○씨 안에 있어요?”

“아이고 어서 오시라요.”

오늘 나를 방송국까지 태워주기로 한 사람이 도착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오늘 여의도 갈 일이 있다기에 방송국까지 태워달라고 한 것이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제 준비가 다 끝나 갑니다.”

이제 향수만 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스킨 뚜껑ㅊ을 열고 병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리고 몇 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씨, 지금 뭐하는 거야?”

이제까지 내가 향수를 뿌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그 사림이 손을 휘저으며 일어났다. 나는 영문을 몰라서 사실대로 말했다.

“뭐하긴요. 향수 뿌리고 있디요.”

“에이 이 사람. 그건 향수가 아니야. 얼굴에 바르는 스킨이라구.”

아는 것이 힘이라던 말이 이 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나는 스킨이 얼굴에 바르는 물이라는 걸 그런 창피를 당하고서야 알게 됐던 것이다. 북에서는 이런 물을 살결물이라고 하는데 내 영어 실력으로서는 도저

히 연결시킬 수 없는 말들이었다. 나는 그 후로는 다시 맨 얼굴의 사나이가 되었다. 괜히 안하던 짓하다가 그런 창피를 당했으니 그냥 비누 냄새만 풀풀 풍기고 다니는 것이 계속 편했다.

그래도 지금은 남북이 화장품을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지 어느 정도 터득했다. 살결물을 스킨이라고 하고, 물크림을 로션이라고 하고, 입술 연지를 루즈라고 하고, 눈썹 연필을 아이펜슬이라고 하고, 파아스카는 화운데이션이라고 하고…….

1.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면서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 겉옷은 계절과 용도를 생각하여 정한다. 겉옷으로 슈트, 원피스, 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등이 있으며, 이에 맞는 베스트, 스웨트 등을 갖추어 입기도 한다. 스카프, 벨트, 펜던트, 구두와 핸드백 등도 서로 조화되도록 한다. ('가정 교과서'에서) (나) 김 선수, 볼 커트 당하자 하프라인 넘어 대시, 심한 마크 당하자 살짝 사이드 패스, 이 선수에게, 다시 김 선수에게 다시 드루 패스,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슛, 그러나 골키퍼 골킥입니다. 마크에 놓고 볼레이스 킥, 롱 킥한 볼, 미드필드 부근, 헤딩 모션으로 점프, 레프리 휘슬,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1) 이 말을 가능한 우리말로 바꾸어 보자. 바꾼 문장이 원래의 문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가) 겉옷은 계절과 용도를 생각하여 정한다. 겉옷으로는 정장 원피스, 드레스, 저고리, 바지, 치마 등이 있으며 이에 맞는 조끼, 스웨터 등을

갖추어 입기도 한다. 목도리, 허리띠, 양말, 목걸이, 구두와 핸드백 등도 서로 조화되도록 한다.

(나) 김선수, 공을 뺏기자 중앙선 넘어 돌진, 심하게 저지 당하자 살짝 옆으로 패스, 이선수에게, 이선수 김선수에게 다시 드루 패스, 패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슛, 그러나 골키퍼 골킥입니다. 마크에 놓고 플레이스 킥, 길게 찬 공, 미드필드 부근, 헤딩 동작으로 점프, 주심 호각(을 불어), 자유축을 선언했습니다.

(2) 우리말에서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 남북한의 생활 용어는 어떻게 다를까요?[55]

(1) 북한의 (　　)생활용어를 조사해서 적어 봅시다.

[북한말]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2) 북한의 (　　) 생활용어의 특징을 적어 봅시다.

• _____

• _____

55) 김용의 북한이야기. http://kimyong.co.kr/northkorea/n_main.htm,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www.uniedu.go.kr/main/index.html 참고.

(3) 남북한의 생활용어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 _____
- _____
- _____

활동 6 언어규범 및 언어생활예절

남북한의 언어법칙

▣ 남한의 국어사전 배열

자음 -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ㅣ

▣ 북한의 국어사전 배열

자음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ㅇ]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 남북의 국어사전 배열의 차이점

- 남한 사전에서는 'ㅅ'항목 다음에서 'ㅇ' 을 찾게 되지만, 북한 사전에는 'ㅇ'이 맨 끝에 위치한다.
- 북한 사전은 받침 'ㅇ'이 'ㅎ' 다음의 맨 끝이 아니라 'ㅅ' 다음에

자리잡고 있다. 즉 초성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맨 뒤로 가지만 음가가 있는 받침 'ㅇ'은 'ㅅ'에 이어진다.

• 북한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는 기본은 24 자를 앞세우고 복합 철자는 뒤로 돌리는 것이 남한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ㄲ', 'ㄸ' 등은 남한 사전에는 각각 'ㄱ', 'ㄷ' 다음에 나오지만 북한사전에는 모두 뒤로 돌려져 있다. 모음 역시 'ㅏ, ㅑ, ㅓ, ㅕ' 등의 기본음이 순서 대로 나온 뒤 'ㅐ, ㅒ, ㅔ, ㅖ' 등의 복모음은 뒤편으로 간다.

•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는 표제어 발음의 높낮이를 숫자로 표기하고 있다. 1은 낮은 소리, 2는 보통 소리, 3은 높은 소리를 나타낸다. '강가'는 '2, 2'로 '제대로'는 '2, 3, 2'로 되어 있다.

• 1992년에 새로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에는 다른 외래어들과 함께 한자어도 병기하고 있으나, 한글 전용 원칙에 따라 여전히 한자말이나 한문 투의 낱말은 일상생활에서 될수록 쓰지 못하도록 낱말 뒤에 동그라미 안에 X를 해놓고 있다.

북한의 언어생활 예절

• 북한은 '문화어 예절법'에 따라 언어예절을 표현한다.

• 사회적으로나 나이로 보아 윗사람인 경우에는 직책, 직위, 이름 뒤에 '동지'를 붙인다.

• 과학, 교육 및 보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은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높여 부를 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상대방의 직무나 지위 이름 등에 '동무'를 붙여 쓴다.

• 남편이 아내에게 “야, 여!”, “언제 왔어?”와 같이 반말투로 말하는 것은 여성들을 천시하고 모욕하던 낡은 사상의 잔재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낮추어 표현하도록 언어 표현을 따로 규정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미제국주의자,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 종교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경멸, 적개심, 증오심을 나타내는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며 주로 비어나 속어를 사용한다.

• 김일성 주석에 대한 언어 예절을 강조한다. - 김일성 주석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 정중하고 뜨거운 감정을 표시하며,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어휘와 언어표현을 따로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김일성 주석에 대한 언어예절의 표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1. 국어사전 찾기

- 남한 국어사전의 자모음 배열을 적어 봅시다.
  - 자음 :
  - 모음 :

- 북한 국어사전의 자모음 배열을 찾아봅시다.
  - 자음 :
  - 모음 :

2. 남북의 국어 사전 배열의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3. 통일 사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지 적어 봅시다.

4. 북한의 언어 예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　　)에 알맞은 낱말을 적어 봅시다.

- 사회적으로나 나이로 보아 윗사람인 경우에는 직책, 직위, 이름 뒤에 (　)(을)를　붙인다.
- 과학, 교육 및 보건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은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높여 부를 때에는 (　　)(이)라고 부른다.
-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상대방의 직무나 지위 이름 등에 (　　)를(을) 붙여 쓴다.

생각 넓히기

1. 다음 글을 읽고,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통의 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모둠별로 의견을 발표해 보자.

남북의 언어가 이질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분화의 연대가 아직 반세기에도 미치지 않았고 맞춤법과 같은 표기법은 원래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진 만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동질성의 회복이 생각 밖으로 쉬워질 수 있다. 문제는 어휘의 이질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우리가 먼저 밟아야 할 절차는 이질성과 동질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념이나 제도에 관련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동질적 요소가 많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질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단계로 나아가

야 한다. 극복의 문제도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최종적으로 선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적응의 과정은 북쪽의 문헌이나 신문을 본다든지 텔레비전, 라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극복의 원초적인 단계이다. 선택은 전문 학자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특히 어휘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 양쪽이 서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용어와 전문용어를 포함하는 '대조사전'을 편찬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남북 양쪽이 공동츠로 추진하는 '우리말 큰사전'(임시이름)의 편찬이 가능하다.

-남기심, '남북 언어 통일의 방향' 중에서

2. 네 편의 노래는 모두 분단과 통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세 편의 노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해 보고, 이와 같은 노래가 생겨난 원인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해 보자.

라구요

- 강산에-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을 볼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십팔번이기 때문에 십팔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십팔번이기 때문에 십팔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발해를 꿈꾸며

- 서태지 -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한민족인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걸
진정 너는 알고는 있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겐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치유할 수 없는 아픔에 절규하는 우릴 지켜줘
갈 수 없는 길에 뿌려진 천만인의 눈물이 있어
나에겐 갈 수도 볼 수도 없는가
저 하늘로 자유롭게 저 새들과 함께 날고 싶어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건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이제 함께 하나를 보며 나아가요

경의선 타고

-우리나라-

갈꺼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 평양 지나 신의주 저 넓은 광야로
올꺼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오고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 오고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반백년 분단의 장벽을 걷고 / 통일의 새날을 여내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타고 /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 우리함께 만나요.

오고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 오고가는 경의선 평화가 넘쳐
반백년 분단의 장벽을 걷고 / 통일의 새날을 여내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타고 /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 우리 함께 만나요.
북경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타고 / 런던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 경의선 통일의 철길따라 / 우리 함께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타고 /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아~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한 핏줄의 아픔마저 모른 척 눈 감아야 했던
부그러운 지난날을 뒤로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한 민족의 자랑마저 모른척 귀 막아야 했던
바보 같은 지난날을 털어내고 우리는 이제 함께 갈 거예요.

서로의 기-쁨과 슬픔 더불어 울고 웃으며
겨레의 힘과 지혜 한데 모을 때 누구도 우릴 막진 못 하죠.

우리끼리 더 많이 나누고 우리끼리 더 많이 사랑하며
세상에서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3. 다음은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설문지이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1	평소 북한의 문화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	① 있다 ② 없다
2	어떤 매체를 통해 문화어를 접해봤습니까?
답변	① 시사 프로그램 ② 북한 뉴스 ③ 개그 프로그램 ④ 북한 노래 ⑤ 기타
3	다음 중 접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답변	① 북한 공연 ② 북한 드라마 ③ 북한 대중가요 ④ 북한 영화 ⑤ 없다
4	북한 문화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5	문화어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6	문화어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7	남북한 언어 교류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8	남북한 언어 교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의견 설문 조사

Ⅴ. 결론

남북한의 온전한 통일을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남북 간의 오해, 편견으로 인한 갈등이 언어의 차이와 언어문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사회문화 차이와 더불어 언어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통일에 있어서 언어의 동질성 회복은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 언어의 동질성 회복은 '언어 차이 극복'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어 전문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인 의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주체인 대중이 남북한 언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이 단편적, 일시적, 흥미 위주로 이루어져 북한어 이해 교육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북한어 이해'에 대한 편협한 이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이 불충분한 점, 교수 학습 방법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보았다.

Ⅱ장에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언어 차이의 기술은 언어에 대한 범주 및 영역 설정 그리고 기술 제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의 극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만큼 남북한 언어관과 언어정책에 차이에 대해 약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래 방언적인 차이 외에 체제

와 이념상의 차이에 의한 언어 사용의 이질적인 요소가 있을 뿐이어서 근본적인 이질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쪽의 표준어와 북쪽의 문화어는 우리 민족의 한 이형태를 규정하는 언어 규범상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Ⅲ장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북한어 이해'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고, '북한어 이해'는 북한의 언어적 특성뿐 아니라 북한의 언어 문화적 특성까지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어 이해'는 언어적 특성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언어적 특성을 다룸에 있어서도 단순히 남한어와 차이나는 몇 가지 발음, 어휘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로 '북한의 언어적 특성 이해'와 '북한어의 문화적 특성 이해'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반드시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의 능동적 태도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북한어 이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능동적 태도를 지녀야지 남북한 간의 완전한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절에서는 국어지식 교육에서의 5차, 6차,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일관성 없는 북한어 이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이 단편적, 일시적, 흥미 위주로 이루어져 북한어 이해 교육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3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문법 교육이 지식, 기능, 태도로 삼분되어 이루어

져 왔음을 살피고, 김광해(1997)에서 제시한 국어지식 교육의 '우리말 알기'와 '우리말 가꾸기'를 활용하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즉, '알기'에 해당하는 '지식'을 통해서 북한의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가꾸기'에 해당하는 '태도'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장에서는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모형을 탐색하고, 실제 수업 모형의 예를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을 위한 주안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분석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북한어의 언어 ·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그 배경 및 원인까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이 보통의 탐구 학습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절에서는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업은 동영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 각 단계마다 북한의 교과서에 실린 예문과 노동신문의 사례를 제시하여서 텍스트 분석 활동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어 이해 교육이 지금까지 일정한 체계와 원칙 없이 흥미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국어지식 교육에서 북한어 이해 교육이 체계적 ·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북한어 이해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북한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의 텍스트를 제시하였으나 그 사

례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의 언어 예절, 언어 심리, 성별 언어 특성, 계층별 언어 특성이 구체적으로 텍스트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했다. 둘째, 입말의 경우에는 단순 언급에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학습자에게 북한어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북한 문헌

과학 · (1979),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화과학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1996, 3판), 인민학교 국어 1, 북한 : 평양

----------(1996) 인민학교 국어 2, 교육도서출판사

----------(1996) 인민학교 국어 3, 교육도서출판사

----------(1996) 인민학교 국어 4, 교육도서출판사

----------(2003) 인민학교 국어 1(소학년 제1 학년용, 6판), 북한 : 평양

----------(2002) 인민학교 국어 2(소학년 제2 학년용, 4판), 북한 : 평양

----------(2001) 인민학교 국어 3(소학년 제3 학년용, 4판), 북한 : 평양

----------(2001) 인민학교 국어 4(소학년 제4 학년용, 4판), 북한 : 평양

----------(2001), 고등중학교 국어 1, 교육도서출판사.

김용구(1989), 조선어문법,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 종합대학출합사(1976), 조선문화어문규범,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해주 제2사범대학 · 평양제2사범대학(1973), 국어교수법, 교육도서출판사.

2. 남한 문헌

강동희(2000), '우리말 다듬기'와 '국어 순화'를 통한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에 대한 말과 글 제93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강선욱(1987),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연구, 홍익어문 6, 홍익대.

고영근(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 문화사.

-----(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1994a),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곽충구(2001),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새국어생활 1-1, 국립국어연구원

-----(2003), 남북의 언어 이질화와 그에 관련된 몇 문제, 남북의 언어와 한국어 교육, 태학사.

교육부(1997a),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6차),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1997b), 중학교 3-1 국어 교과서, 한국 교육 개발원.

---- (1998), 고등학교 국어 (하) 교과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2002a),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7차),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2002b),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2003), 중학교 3-1 생활국어, 고려대 · 한국 교원대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국립국어연구원(1992), 북한의 언어정책, 정문사.

----------(2001), 북한어 연구 논저 해제집, 국립국어연구원

----------(2002),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원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1989), 통일을 여는 국어교육, 푸른나무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1999), 21세기를 여는 국어 정책, 국어지식 탐구, 서울대 출판부.

-----(2000), 국어능력의 재개념화와 평가 내용의 체계, 국어교육 평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 200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 학술발표대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김대행(1994), 남북의 문학과 국어교육, 교육 월보 10, 교육부.

-----(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제4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 연구, 고려대 출판부.
-----(1994), 남북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언어, 태학사.
-----(1998), 민족어의 통일문제, 개교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남북한 언어 통일의 과제와 전망, 강남대학교.
-----(2006),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한 것인가, 국학자료원.
김성아(1999), 남북한 문법교육의 대비적 고찰, 울산대 석사 학위 논문.
김승철(2003),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제재 분석, 근현대 민족 어문교육 기초연구 제4차 집담회,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은성(1999),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김응모(2000a), 남한에서의 북한어 교육, 부산외국어대 교육논총 제2호).
-----(2000b), 통일대비 남북한어 이해, 세종출판사
김차균(1991), 북한의 문화어 음운 연구에 대하여, 한글 제213호, 한글 학회.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남기심 · 고영근(1895, 개정 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기심 · 김하수(1989), 북한의 문화어,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남성우 · 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남승림(2001), 남북한의 문법 교육 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리의도(1999), 남 · 북한 언어의 차이, 우리말글의 현실과 이상, 어문각.
말과 글(2000), 말글이 통일돼야 국토도 통일된다, 여름호 83호, 한국교열 기자협회.
문교부(1985),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4차), 성균관대 대동 문화 연구원.

-----(1991),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5차), 성균관대 대동 문화 연구원.
문화관광부(2001),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연구, 문화관광부.
민현식(2002a), 7차 교육과정 개정 <고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상관요소, 국어학 연구와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봄 점국학술대회.
-----(2002b), 국어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c), 남북한 띄어쓰기 규범 문제의 현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3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2001.
-----(2002d),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03a), 국어순화론, 남북의 언어와 한국어 교육, 태학사.
박갑수(1994a), 남북의 어휘와 국어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1994b), 올바른 언어생활, 한샘출판사.
-----(1994c), 남북 맞춤법 차이와 그 통일 문제, 어문연구 81-82, 한국어문연구회.
-----(1997), 남북한의 언어 차이, 중학교 국어 3-1, 교육구.
-----(1998), 통일에 대비한 국어교육의 현황과 대책, 국어교육연구집 제5집.
-----(1999a), 남북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문제,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월인.
-----(1999b),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그 통일 정책, 남천 박갑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남천박갑수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간

행위원회.
-----(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덕유(2002), 문법교육의 탐구, 한국문화사.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2001),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박영순(1994), 남북언어의 이질화 현상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하여,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19998), 한국어 문법교육론, 박이정.
반숙희 · 박안수(2000), 국어과 통일 수업 사례, 함께여는 국어교육 겨울호, 전국국어교사모임.
소강춘(2000), 북한의 국어교육실태 연구, 국어교육 10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서 혁(1997), 통일 국어교육의 방향과 교수 · 학습 방법, 함께여는 국어교육 1997 여름호.
서혜경(2001),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3, 경북대 사범대 국어교육학회.
성은주(1994),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숙대 석사 학위 논문.
신명선(1998),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언어 현상, 한글 2000호, 한글학회.
우리교육(2000), 민족, 민족어, 민족교육, 우리교육 2000년 9월호.
윤희원(1989), 북한의 국어교육에 관한 고찰, 주시경 연구 4, 탑출판사.
-----(1999), 북한 지역 국어교육의 현황, 남천 박갑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남천박갑수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윤희원 외(1997), 남북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사대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이관규(1999, 개정판 2002), 학교문법론 개정판, 월인.

-----(2001),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 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 106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석주(1994), 남북한의 표기법과 국어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이옥련(2000), 남북의 언어 문화, 국어교육 10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윤표(1991), 북한의 국어 순회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2, 녹진.
-----(2000), 민족어의 통일을 위하여, 한국어의 탐구와 이해, 박이정.
이응벽(1989), 남북한 국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안, 새국어교육 4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인제(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운대 박사 학위 논문.
이인제 외(2000), 남북한 초 · 중등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주행(1994a), 북한의 화법과 국어교육, 교육월보 10, 교육부.
-----(1994b), 남북한 전문 서적의 문체,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주)
-----(1996),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문연구논문 제44집, 한국방송방사.
이춘근(2002), 문법교육론, 이회.
임칠성(1996), 북한의 화법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53,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수태(1992), 북한의 국어 교과서 분석, 북한의 언어정책, 국립국어연구원.
-----(2007), 세계화 시대의 남북 언어, 대한교육문화신문출판부
정경일(2002), 남북한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3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2001.
정도복(1992), 남북한 국어정책의 비교연구, 조선대 박사 학위 논문.
조경석(1996),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강원대 석사 학위 논문.
조오현 외(2002), 남북한 언어의 이해, 역락.

조중행(2001), 남북한 학교문법 비교 연구, 인천대 석사 학위 논문.

진태하(1989), 남북한의 국어교육 정책과 통일 방안, 새국어교육 45, 한국국어교육학회.

최명주(2001),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 석사 학위 논문.

최원기(1999), 북한이 변하고 있다, 월간중앙, 중앙일보사.

최정후 · 박재수(1999), 주체적 언어리론 연구, 박이정.

최차석(2001), 남북한 문법 교과서 비교 연구, 영남대 석사 학위 논문.

최호철(1999),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월인.

최현섭(1993), 북한 국어교육 이론 고찰, 한글 222, 한글학회.

-----(1999),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정책, 남천 박갑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남천박갑수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최현섭 외(1996),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인천교육대.

-------(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연구, 역락.

통일부(2003), 2004 통일교육 기념 지침서.

하치근(1993), 남북한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1998), 남북한 언어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학 총서 2,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국학, 집문당.

----(2002), 남북 맞춤법의 통일화 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3호,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2001.

한철우(1998), 북한 국어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한국어문교육 7집,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용원(2002), 통일 정책 · 교육론, 오름.

홍성원(2003), 북한 언어의 특지오가 통일언어 교육의 지향점, 말과 글 제 96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홍연숙(1991), 언어 이질화 극복을 위한 국어교육, 새교육 435호.

홍종선(1999), 남북한 국어 문법의 통일,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월일.

홍종선 · 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황정은(2001), 남북한 중학교 교과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숭실대 석사 논문.

Abstract

An alternative course model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n Language

Kim Seo Hyun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requisite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most of all include active communication and mutual respect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Active communication and mutual respects, however, cannot be achieved through verbal declarations. Relentless efforts and education of the public should be accompanied for the enhanced mutual understanding via communication and mutual respects. A key el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for the reunification is a consistent "national identification education" which has been lacked in the current education policy. In particular, Korean education has nearly abandoned the "national identification educa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education as those of other subjects such as social education and ethics.

Korean education should develop an education system to bridge the language gaps between two Koreas in order to regain the national identification. Correcting the language gaps pertains enormous importance since language is the very tool of communication and the medium of emotions. The differences in two Korean languages have become larger and larger as time passes by since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Of course, there have been academic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two Koreans and the efforts have resulted in a systemized research field.

However, academic research alone can hardly overcome the language gap without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ctually using the differentiated languages into the efforts to overcome the gap. In order to make the public be ready for the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n effective and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course.

This thesis suggests alternative education models based on the criticism of current practices of the No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have adopted inconsistent and less systemic approaches. The main purpose of North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ot to use North Korean language but to understand it as a building block for regaining the national identification between two Koreas. The alternative course

of North Korean language, first, notes that the two languages share the same root and, second, suggests a method for a system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reflecting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society.